

'신의 손' 나영석 PD, 그는 뭐가 다른가?

'신혼일기·윤식당·알쓸신잡·신서유기' 등 만드는 예능마다 시청률 대박행진

끊임없는 도전 대중의 취향 저격

만드는 예능마다 시청률 대박을 터트리며 '신의 손'으로 불리는 나영석(41) PD가 험악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신혼일기'를 필두로 '윤식당'을 성공시킨 나 PD는 지난달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알쓸신잡)과 '신서유기'를 한꺼번에 선보이며 성공을 거뒀다.

특히 '알쓸신잡'은 '인문학 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예능 프로 역사를 다시 썼다.

신혼 부부의 달달함과 함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 '신혼일기'는 시군 제작이 확정됐다.

나 PD의 대표적인 예능 시리즈 '삼시세끼' 시퀀스는 '알쓸신잡' 후속으로 다음달 중 방송될 예정이다.

나 PD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분석해봤다.

◆끊임없는 도전

2001년 KBS 27기 공채 프로듀서로 입사 후 PD의 길을 걷게 된 나영석 PD는 2013년 CJ E&M으로 이적했다.

'꽃보다' 시리즈, '삼시세끼' 등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두 대박이 났다.

그는 안주하지 않고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나영석 PD의 도전 정신은 '알쓸신잡'을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

그간 여행과 음식 소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 PD는 과감히 다른 시도를 했다.

작가 유시민을 필두로 맛집리스트 황교익, 소설가 김영하,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정재승 등 각 분야 최고 지식인들을 예능 프로그램으로 끌고 온 것.

국내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전공은 물론 분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는 '수다 여행' 콘셉트는 그 자체로 신선했고 결과적으로도 성공을 거뒀다.

또 '웹 예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중국의 고전 소설 '서유기'를 재해석한 '신서유기'는 시즌 4까지 제작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대중의 취향 저격

나영석 PD는 대중들이 좋아할만한 코드를 정확히 포착해 이를 프로그램으로 풀어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힐링 예능'의 대가다.

'꽃보다' 시리즈는 연예인들의 솔직한



만드는 예능마다 시청률 대박을 터트리며 '신의 손'으로 불리는 나영석 PD가 험악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신혼일기'를 필두로 '윤식당'을 성공시킨 나 PD는 지난달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알쓸신잡)'과 '신서유기'를 한꺼번에 선보이며 성공을 거뒀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해외 여행기에 그치지 않았다.

여행지보다 누구와 여행을 떠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시청자들에게 '여행'에 대한 편견을 심어줬다.

농어촌에서 자급자족으로 하루 세끼를 해결하는 '삼시세끼'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소소한 삶을 그려 진정한 감동과 재미를 안겼다.

'윤식당'은 발리의 이국적 풍광 속에서 슬로우 라이프, 은퇴 후 퇴직자들이 꿈꾸는 삶의 풍경을 그려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의미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신혼일기'의 경우 연예인 부부가 등장해 신혼 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가장 연애·결혼 프로그램으로 지쳐있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힐링을 줬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나영석 PD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다"며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알

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나 PD다. 만약 광고를 했어도 잘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영석 시대의 힘

나영석 PD의 계속된 성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일명 '나영석 시대의 힘'이 있기에 가능했다.

나 PD는 '신혼일기'는 이우정 PD '윤식당'은 이진주 PD '신서유기'는 신효정 PD와 공동 연출했다.

KBS 제작 시절 '해피선데이1박2일'을 함께 한 이우정 작가를 비롯한 최재영·김대주 작가도 나 PD의 오늘을 있게 한 일등공신이다.

물론 같은 10년이 넘게 호흡을 맞춰 왔다는 것이다.

'tvN 공무원'이라는 별명까지 생긴 배우 이서진도 든든한 파트너다.

이서진은 지난 4월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다른 예능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오면 출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안 한다. 한 피디하고만 하니까"라며 나 PD에 대한 의리를 드러냈다.

한 방송사 PD는 "나영석 PD를 스타로

만든 것은 방송국이나 네티즌이라고 생각한다"며 "1박2일이라는 대박 프로그가 생겼을 때 MBC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유재석과 2강 체제를 유지하면서 1박2일로 전성기를 누렸다. 그 때 사람들이 나영석 PD를 좋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선배보다 후배가 어렵다"며 "후배 PD들이 안 때리고 작가들도 그렇게 움직이기 어렵다. 팀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나 PD 인성이 좋거나 사람 관리를 잘 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PD가 창의력도 좋지만,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PD가 그렇게 창의적인 직업이 아니다"며 "창의적인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나 PD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과 계속 일하는 것도 대단하고, 워트 넘치는 자막·뛰어난 편집 능력도 인기 비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방송사 PD는 "나영석 PD를 스타로

만든 것은 방송국이나 네티즌이라고 생각한다"며 "1박2일이라는 대박 프로그가 생겼을 때 MBC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유재석과 2강 체제를 유지하면서 1박2일로 전성기를 누렸다. 그 때 사람들이 나영석 PD를 좋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 PD가 창의력도 좋지만,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PD가 그렇게 창의적인 직업이 아니다"며 "창의적인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나 PD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과 계속 일하는 것도 대단하고, 워트 넘치는 자막·뛰어난 편집 능력도 인기 비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방송사 PD는 "나영석 PD를 스타로

만든 것은 방송국이나 네티즌이라고 생각한다"며 "1박2일이라는 대박 프로그가 생겼을 때 MBC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유재석과 2강 체제를 유지하면서 1박2일로 전성기를 누렸다. 그 때 사람들이 나영석 PD를 좋아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국 남녀 궁도대회 오늘까지 다가공원 천양정서

전주시 궁도협회가 주관하고 전주시 전주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제19회 전주시장이 및 전주 천양정 제56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8일부터 오늘까지 전주 다가공원 천양정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궁사 1500여명이 모여 단체전 및 개인전(노년부, 장년부, 여자부, 실업부)으로 나누어 전통 활쏘기 실력을 겨룬다.

민족 전통의 궁도는 자세를 단정히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운동으로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물론 웰빙 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들도 적합한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궁도인의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안동일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한 축의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도 가슴이 뚫리는 듯하다"며 "최고의 궁사들이 총 출동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보는 기쁨을 누리 고 궁도인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13일 무주 태권도원서 개막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 '제 1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오는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엑스포는 전 세계 40개국 2,027명의 선수가 참여해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계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태권도 수련자를 위한 품새, 겨루기, 태권체조, 시범, 호신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의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해 태권도원 내에 11개 체험 코스를 지정하여 진행되는 '스텝 투어'와 K-POP과 함께 댄스퍼티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일반인을 포함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의 장으로 기획되어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원의 홍보와 일반인들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문화관광을 통해 무주와 전주의 문화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근기자

'심판매수 은폐 의혹' KBO 고발 사건 강력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두산 베어스 대표와 심판(현재 퇴직)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고발한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전날 오후 1시께 프로야구 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 의혹과 관련해 KBO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의혹은 KBO가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모 전 두산 베어스 대표이사에게 최모 전 심판의 요구로 300만원을 건넨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와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KBO는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을 내리고 김 전 대표 이사에 비공개로 엄중 경고 조치했다.

문체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KBO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 전 심판이 두산 베어스 히어로즈 등 여러 구단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을 확인했다.

또 문체부는 지난해 8월 두산과 최 전 심판의 금전 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최 전 심판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등을 들어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